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

2019년도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미국 · 캐나다 -

2019. 9. 16. ~ 9. 22. (5박 7일)

영등포구의회

목 차

CONTENTS

Ⅰ. 출장개요 1
1. 출장일정 및 출장내용 1
2. 세부 출장일정 2
3. 출장자 명단 3
Ⅱ. 추진경과 4
Ⅲ. 기관별 연수내용 5
1. 시애틀 시청(Seattle City Hall) 5
2. 타코마 시의회(City of Tacoma) 10
Ⅳ. 주제별 연수내용 14
1. 고용·일자리 우수사례 견학..... 14
(1) SOLE FOOD STREET FARM (사회적 기업)..... 14
(2) Work BC Centre (워크 비씨 센터)..... 17
2. 교육·문화자원 탐방..... 20
(1) 시애틀 공립 도서관..... 20
(2) 써리 공공도서관..... 21
(3)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센터..... 22
(4) 밴프 센터..... 24
3. 문화·관광 우수사례..... 25
4. 기타 사례..... 29
Ⅴ. 총평 및 제언사항 31

선진 의회 및 우수도시의 교육, 문화, 일자리 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한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선진 주요도시의 우수정책 운용실태를 경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견문을 넓히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연구 및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I 출장개요

❑ 출장일정

○ 기　　간: 2019. 9. 16.(월) ~ 9. 22.(일) [5박 7일]

○ 방문지역: 미국, 캐나다

○ 인　　원: 14명(의원9명, 직원5명)

❑ 출장내용

○ 선진의회 탐방 및 일자리·고용 지원 관련 우수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

- 타코마 시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운영방법 및 의회가 주민과 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구하는 지침과 방향 파악
- 시애틀 시청의 고용지원(city employment)부서 방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 알선, 인턴십 제도 관련 자료 수집
- Work BC의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고용주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 파악
- Sole food street farm의 도시농업 정책 및 고용 관련 자료 수집

○ 평생교육·문화 분야의 우수사례 탐방

-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경기장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공헌도 파악
- 밴프 평생 교육 센터의 운영 방법 및 각종 교육·창의·아트프로그램 벤치마킹

○ 기타 현지문화 탐방 및 관광인프라 구성 현황 파악

▢ 세부출장일정

일자	국가명 (도시명)	시간	주요일정
9/16(월)	인 천	16:40	- 인천 국제공항 출발(KE 019)
			********* 날짜 변경선 통과 *********
	시애틀	10:40	-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 도착(10시간 소요)
		14:00	- **[공식방문 1] 시애틀 시청**
			- 시애틀 공립 도서관 견학
		16:00	- 시애틀 문화 탐방
9/17(화)	시애틀	10:00	- **[공식방문 2] 타코마 시의회**
		13:00	- 문화 탐방
	밴쿠버	15:30	- [버스 이동] 시애틀(국경 통과) → 밴쿠버
9/18(수)	밴쿠버	10:00	- **[공식방문 3] 밴쿠버 사회적 기업(소울 푸드 팜)**
		13:00	- **[공식방문 4] Work BC Centre**
		15:00	- 밴쿠버 문화 탐방
9/19(목)	밴쿠버	10:00	- **[공식방문 5] 리치몬드 올림픽 오발 센터**
	캘거리	14:00	- [비행기 이동] 밴쿠버 → 캘거리
	밴 프	16:22	- [버스 이동] 캘거리 → 밴프 국립공원
		19:00	- 밴프 문화 탐방
9/20(금)	밴 프	09:00	- **[공식방문 6] 밴프 센터(Banff Centre)**
		13:30	- 문화 탐방
	캘거리	17:00	- [버스 이동] 밴프 → 캘거리
9/21(토)	캘거리	09:00	- 캘거리 공항 이동
		12:30	- 캘거리 출발(KE 6502)
	밴쿠버	13:00	- 밴쿠버 도착, 국제선 환승
		14;30	- 밴쿠버 출발(KE 074)
9/22(일)	인 천	17:50	- 인천공항 도착(11시간 20분 소요)

☐ 출장자 명단 (의원 9명, 직원 5명)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영등포구의회	의 장	윤준용	
	부 의 장	권영식	
	운 영 위 원 장	김길자	
	행 정 위 원 장	김재진	
	의 원	정선희	
	“	고기판	
	“	오현숙	
	“	장순원	
	“	이미자	
구의회사무국	국 장	방정찬	수행직원
	의 정 팀 장	국경임	“
	주 무 관	최영호	“
	“	김초롬	“
	“	고영선	“

Ⅱ 추진경과

▢ 공무국외출장의 주제 및 국가 선정(의장단 회의) ..... 7.14.

○ 선진 도시 의회 및 시청 견학: 타코마 시의회, 시애틀 시청

○ 사회적 기업 및 고용·일자리 우수 사례: Sole food street farm, Work BC Centre

○ 교육 및 문화 우수 사례: 리치몬드 올림픽 오발 센터, 밴프 센터

▢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전 준비

○ 사전준비팀 구성

- 구성인원: 5명(의원 3명, 직원 2명)
- 팀 구성: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위원장, 의정팀장, 최영호
- 준비기간: 10일
- 준비내용: 방문기관 선정, 연수일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준비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 8. 2.

○ 일시: 2019. 8. 2.(금) 10:30 ~ 12:00

○ 장소: 제1소회의실

○ 출석인원: 심사위원 9명

○ 심사내용

-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국, 출장기관과의 타당성
- 출장기간·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 심사위원의 주요 질문 및 토의내용

- 영등포구의 여건과 유사한 지역을 방문하여 선진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 하길 당부
- 전체적으로 방문국 및 방문기관 선정에 있어서 의원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가 각자의 특색에 맞는 기관을 계획해 놓은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함.

○ 심사결과: 적합(9명 전원)

▢ 의원 공무국외출장 연수업체 사전 설명회 .....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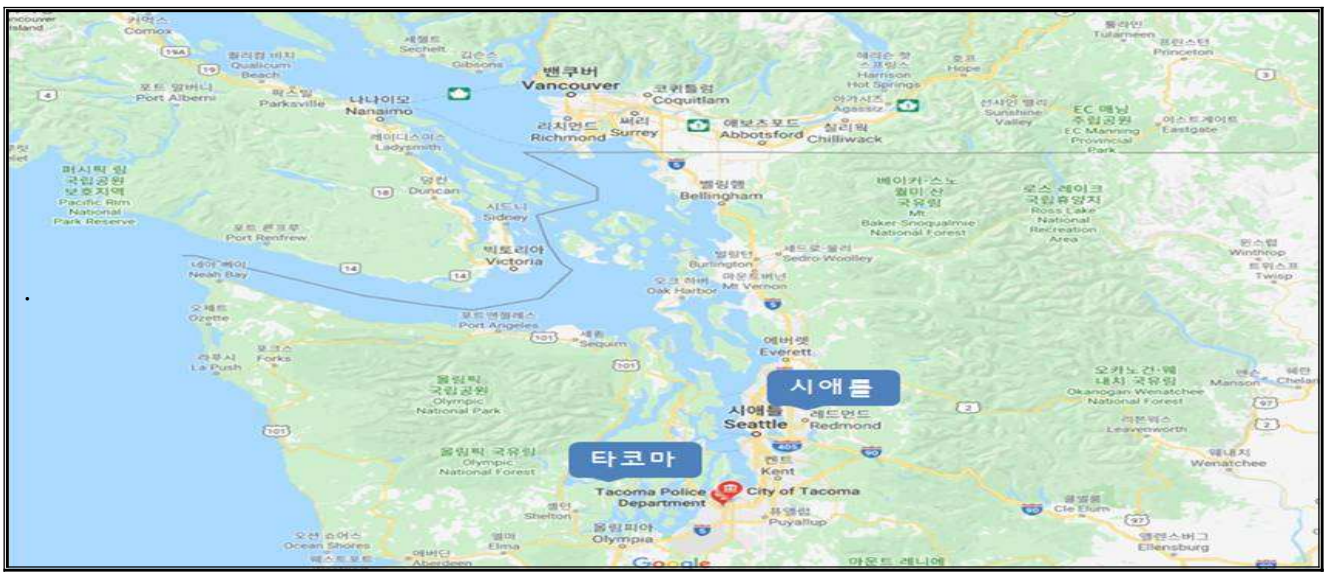
○ 추진과정 및 연수 국가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기관 및 시설 방문 선정 경과 등 세부 일정 설명 및 토의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 ..... 9.16. ~ 9.22.

▢ 공무국외출장 강평 및 결과보고회 ..... 10.7.

Ⅲ 기관별 연수내용



1 시애틀 시청(Seattle City Hall) -미국

○ **방문일시**: 2019. 9. 16.(월) 14:00 ~ 15:00

○ **현　　황**: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King County)에 속한 시애틀에 있는 건물로 총 직원은 12,000여명, 일자리 지원부서 근무자는 120명임

○ **방문목적**: 시애틀시청 고용관련 교육지원부서(인적자원과)로 직업알선, 교육, 인턴십제도 등을 소개하여 우리구와의 차이점이나 유사점 등 의견교환

☞ 인적자원과(Seattl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 **시　　장**: Jenny A. Durkan

○ **면 담 자**: David Wright(근로능력 개발 담당자) 외 8명

○ **주요내용**

– 시애틀은 미국 워싱턴주 중부에 있는 도시로 미국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평균 실업율은 3.4%로 2010년도 9.5%보다 많이 낮아졌음.

대표적인 글로벌회사로 아마존 본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보잉공장·스타벅스 본사 등이 있음.

– 시애틀시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경제개발전략의 중심으로 두고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음.

- 성인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경력단절자 지원, 장년층 및 경력자 고용,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등이 있으며,
-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재학생을 위한 직업 훈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고용, 비행청소년 계도 프로그램, 학습센터 운영 등이 있음
- 시애틀시 경제개발청에서는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에 따라 지역의 인재가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진로연계 학습과 연구·혁신 등**을 표방하고 있음.
- 재무부서 등 기타 부서에서도 업무협약을 통한 저소득층 우선 고용, 노숙인·전과자를 위한 프로그램, 청년취업 지원 등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질의 및 답변 내용

발의자	내 용
정선희 의원	◎ 질문: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연계방안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 David Wright –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참고로, 시애틀, 킹카운티 실업률은 3.4%로서 전국의 5%보다 낮은 수치임.
김길자 의원	◎ 질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방법은? ▸답: David Wright – 이 곳에서 훈련 받게 되면 많은 교육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함. – 간단한 봉사나 현장에서 하는 일은 몇 주만 배우면 할 수 있음. –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 다르므로 레벨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윤준용 의원	◎ 질문: 구직자는 주로 어떤 계층인지? ▸답: Jason Petrait – 시애틀과 킹카운티 인구 220만명 중 이민자나 외국 계통이 많음. – 작년에 총 4만여 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대졸자 이상의 학력이 33%, 3천 2백 여명은 장애인, 1천 8백 여명은 노숙자, 군 출신이었음. ◎ 질문: 노숙인들을 위한 연계직종은? ▸답: Jason Petrait

발의자	내 용
	– 쉽게 배우고 임금이 높은 건설현장을 많이 연계하고 있으며, – 의료수가가 비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쪽으로 취직을 많이 하고 있음.
고기판 의원	◎ 질문: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지? ▸답: Debbie White – 시애틀 시는 시급 15불이며 시 외곽은 12, 13불임. –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주마다 다름. ◎ 질문: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는지? ▸답: David Wright – 이력서 작성 시 사진란이 없지만, 출신학교나 자격증 보유여부 등은 작성하고 있음. 면접 전문 프로그램도 있음.
권영식 의원	◎ 질문: 일반 취업자들의 평균 수입과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와의 평균 수입의 차이는? ▸답: Min Song –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름. – 대학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기도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은퇴자가 있어 자리가 마련되면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있음. – 요즘은 고등학생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음.
김재진 의원	◎ 질문: 시애틀 시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부서 및 근무위치 등) ▸답: Matthew Houghton – 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모든 사무실이 시와 관련되어 있고, 시장이 집무하는 곳은 별도 마련되어 있음. – 시청 전 직원이 1만 2천여 명인데 이 부서에는 1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관련사진

일자리 정책 설명

질의응답 | 기념촬영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전년대비 평균임금은 2.4%, 구인 수는 4.3%씩 증가하였으며 2010년 당시만 해도 9.5%의 **실업률**이었던 것이 지금은 **3.4%**까지 대폭 낮아졌음.
- 이는 아마존 등 시애틀에 기반을 둔 대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측면도 있으나 시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인종적 소외계층(흑인, 히스패닉 등)** 및 **장애인**에 대한 실업률 저감을 위한 **일자리 연계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두드러진 지역경기 성장과 일자리 정책의 활성화는 실업률 경감을 촉진하는 쌍두마차로서 서로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2 타코마 시의회(City of Tacoma) -미국

○ **방문일시**: 2019. 9. 17.(화) 10:00 ~ 11:00

○ **시　　장**: Victoria Woodard

○ **면 담 자**: Debbie Bingham(경제개발서비스 프로젝트 담당자) 외 2명

○ **현　　황**

- 워싱턴 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 시의원 총 8명, 선출직, 4년 임기, 2번까지 연임가능
- 인구 213,000명 / 면적 50평방마일 / 중위소득 64,150달러
- 교육기관: 3개 종합대학 및 3개 기술학교
- 자연환경: 8마일의 해안가, 3,000acre(에이커) 면적의 자연산림
- 미국내에서 고등학교 졸업률이 89%로 높고 최고의 졸업률을 자랑
- 주민서비스 추구방향: 진실성, 공평, 서비스, 탁월함, 완전무결성, 명예
- 노동력 개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채용하거나 채용 후 업무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 진행

☞ **타코마 시장(Victoria Woodard) 환영인사**

· 방문하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며, 좋은 것만 배우고 가시기 바람.

·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 곳 시민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채용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음.
(최저시급 결정, 주거지 렌트 등 업무도 하고 있음)

· 한국의 군산시와 타코마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40주년 되는 해인데 4월에 군산을 방문하였고 이번해에도 군산시의회 의장님이 방문할 예정임

○ 질의 및 답변 내용

발의자	내용
윤준용 의원	◎ 질문: 시장 선출 방법 및 임기 등은? ▸답: Mayer Victoria Woodard – 선출직이며 4년 임기이고 2번까지 연임 가능함. – 시의원이 총 8명 중 5명과 3명으로 그룹이 나뉨. – 시장 되기 전 7년 정도 시의원 생활을 하였음.
권영식 의원	◎ 질문: 타코마 시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답: Mayer Victoria Woodard – 최고의 자랑거리는 이 곳에 사는 주민임. – 마운트 레이니어 산, 폭포 등 경치 좋은 곳이 많음. – 고등학교 졸업률이 89%로서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좋은 레스토랑과 쇼핑 할 곳도 많음
김재진 의원	◎ 질문: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 Mayer Victoria Woodard – 경찰총장이 시티매니저(2인자)에게 보고하면 시티매니저가 시장에게 보고함. ◎ 질문: 75만불 이상 투입되는 공사에는 법적으로 15% 이상을 현지 노동자를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관급공사에만 해당되는지? ▸답: Debbie Bingham – 관급, 사급 모두 해당됨. – 허가 시 산출 기초자료 제출받으며, 추후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함.
이미자 의원	◎ 질문: 공무원의 정년이나 업무환경은? ▸답: Debbie Bingham – 시청에 2천 여명이 근무하고, 48세부터 은퇴 가능함. – 정년이 65세인데 반드시 은퇴하지 않고 더 일하는 것도 가능함. ◎ 질문: 이 곳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 Debbie Bingham – 시에 5개의 구가 있고, 별도 15개의 비즈니스 구역 있음. – 교육구는 별도로 두고 있음.

발의자	내용
오현숙 의원	◎ 질문: 타코마 시의 일자리 프로그램? ▸답: Debbie Bingham – LEAP(리프)프로그램: 현지인 채용 및 기술학교 프로그램으로, 75만 불 이상 들어가는 공사에는 법적으로 15%이상을 현지 노동자를 채용함. – TTEP(티탭)프로그램: 시민들이 채용되서 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채용이 되기 위한 준비와 케이스별 학습으로 적응을 돕고 있음. – 연방정부 프로그램: 공장이 많아 환경오염 문제가 많은 도시 특성 상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 교육 등으로 공해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임. – small business: 소상공인 프로그램, 고등학생을 위해 인턴십이나 기업체 연계해 주고 의료 관련한 직종이 많음.

○ 관련사진

타코마 시장, Workforce Development, Economic 경제개발부서 담당자 만남

발표 및 질의응답

타코마 시장과 전체의원 및 여성의원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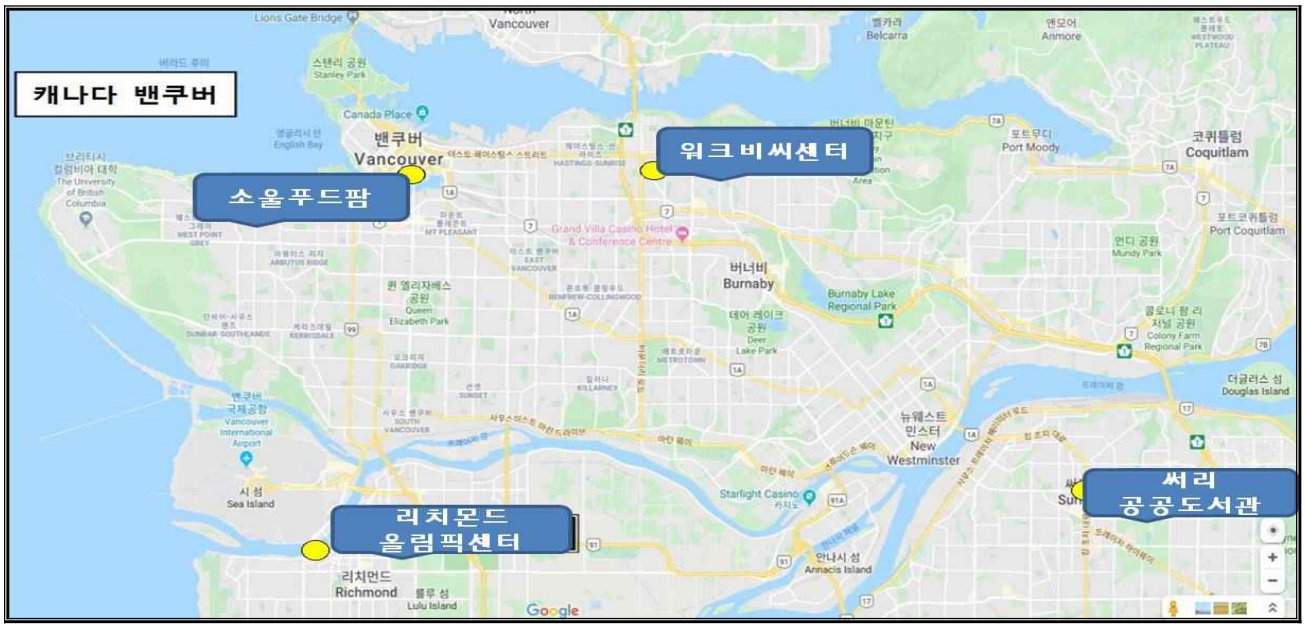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애틀에서 남쪽으로 약 50㎞ 정도 떨어져 있는 타코마 시는 군청 소재지이며 시로서, 군산시와 40여 년간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한 우호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낯설지 않은 친근함을 느끼며 시 측에서도 우리의 방문에 대해 환대하고 있음.

- 일자리 정책으로 특이할 만한 점은 75만 달러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기반 시설사업에는 **법적으로 15%이상의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치구 추진 사업에서 전면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적 방안으로 참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애틀의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은 큰 틀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며, 특히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정책**(방학기간 중고등학생 인턴십 등 지원,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살펴볼 때 우리구도 직업교육을 꼭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차원, 또는 민간차원에서 주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음.

Ⅳ 주제별 연수내용



1 고용 · 일자리 우수사례 견학 -캐나다

□ Sole Food Street Farm(밴쿠버 사회적 기업)

○ **방문일시**: 2019. 9. 18.(수) 10:00 ~ 11:00

○ **면 담 자**: Matt Johnstone(행정 책임자)

○ **주요내용**

- 캐나다 밴쿠버지역의 도시농장 사회적기업으로 폐허지나 미개발토지를 농장으로 개조하여 주로 야채와 채소를 재배하는 **도시농장으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으로 2009년에 **실직자나 무직자, 또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만들었으며,
- 처음에는 차이나타운 뒤편 노숙자 거리이자 우범지대인 헤이스팅스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 시작했다가 오늘날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음.

- 옛 공장지대에 만들다 보니 토양의 화학적 오염이 심하여 작물은 토양이나 콘크리트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상자에 심어 이동용 팔레트 위에서 가꾸고 있음.
-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가 마약환자나 노숙자가 많은 동네인데 이들이 직접 1.5에이커 면적의 도시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식당이나 센터(파머스마켓)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만들어 내는 등,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트레이닝 기회가 되고 있음.

- 총 27명이 일하고 있는데 4~ 6명은 단기고용(7개월 정도)된 인원이고 이동식 주택을 지어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일자리 제공 뿐 아니라 **새로운 경작기술**이나 **소규모 기술 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여기를 떠나서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연간 25,000파운드 가량의 작물을 생산·판매하여 20만 캐나다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시에서 부지를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작물을 땅에 직접 심지 않고 또한 **이동식 주택**을 지어 운영하고 있음.

- Sole Food Street Farm은 미래의 또 다른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지역의 노숙인 등 어렵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계하여 자립을 돕고 있으며 이들이 재배한 작물은 **고급 식당 등에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관련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플라스틱 상자에 심은 농작물</td><td>기념촬영</td></tr>
<tr><td> </td><td> </td></tr>
<tr><td colspan="2">농장 견학 및 관계자 설명 청취</td></tr>
</table>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캐나다 정부는 도시농업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민관이 합동하여 도심 유휴지, 실내경작, 옥상정원 등의 방법으로 도심 농장을 육성하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 식당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자나 마약환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도시농업 사업은 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기여를 함께 도모할 수 있으며, 불모지나 빈 땅을 활용한 작물재배로 친환경적인 측면까지 가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가 있음.

참고로 캐나다는 농산물 수출액 기준 세계 5위이며, 세계시장 점유율 5.7%를 차지하는 농업강국임.

- 우리구도 영등포역 주변은 노숙인 밀집 지역으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노숙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밴쿠버의 **활성화된 도시농업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큼.
- 문래동 공공공지를 도시텃밭으로 활용하여 일부 노숙인 등이 텃밭 가꾸기에 참여토록 하여 자립을 돕고 있으나, 많은 노숙인들의 참여를 높여 사회관계망에서 소외된 이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임.

□ Work BC Centre(밴쿠버 일자리지원센터)

○ **방문일시**: 2019. 9. 18.(수) 13:00 ~ 14:00

○ **면 담 자**: Maryam Habibollahi(고용서비스 책임자)

○ **주요내용**

- 워크센터는 BC주 전체 45개소가 있는데 밴쿠버에 동·서 2개소가 있으며, BC주 **주민들의 구직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지원센터**임.
- 여기를 찾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곳에 비치된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찾아보고 이력서도 작성해 보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우는 부류가 있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음.

- 방문자에게는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데 훈련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해 주며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함.
- **Case Manager가 장애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이민자, 원주민, 청년층**에게는 더욱 관심을 갖고 각별하게 **관리**하기도 함

  ※ case manager의 활동: 구직자들이 가장 빨리 취직이 되고 채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 채용하는 쪽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며, 너무 높은 목표치(기대치)를 내세우며 헤매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함.

○ 질의 및 답변 내용

발의자	내용
김재진 의원	◎ 질문: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방문자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는? ▸답: Maryam Habibollahi – 이민자협회와 파트너십 되어 있어 연결 추천함. – 의지만 있다면 취직에는 문제가 없음, 특히 시리아 난민들은 일 할 각오가 되어 있어 90%정도는 취직하고 있음.
권영식 의원	◎ 질문: 일반적인 직업과 하이클래스 직업과의 취업률 차이? ▸답: Maryam Habibollahi – IT나 하이테크 분야로 취직하기도 하고, 공사현장이 많아 건축분야 직업을 많이 얻고 있음. –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생활비나 주택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임금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써리 지역 등 외곽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형편임.
정선희 의원	◎ 질문: 원하는 직종 연계 시 업체 등과 파트너십 여부는? ▸답: Maryam Habibollahi – 전부 연계해 줄 수는 없지만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곳은 가급적 연계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장순원 의원	◎ 질문: 이주민들에게 취업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생활 지원하는지? ▸답: Maryam Habibollahi – ISS(이민자학교)나 YWCA등과 제휴 맺어 필요한 곳으로 연계하며, 방문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임. ◎ 질문: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 여부는? ▸답: Maryam Habibollahi – 방문자에게는 아침에 기부받은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며, 필요 시 식사비나 의복비, 교통비도 서비스함. – 취직 후에도 1년 간 꾸준히 관리해 주고 있음.

○ 관련사진

센터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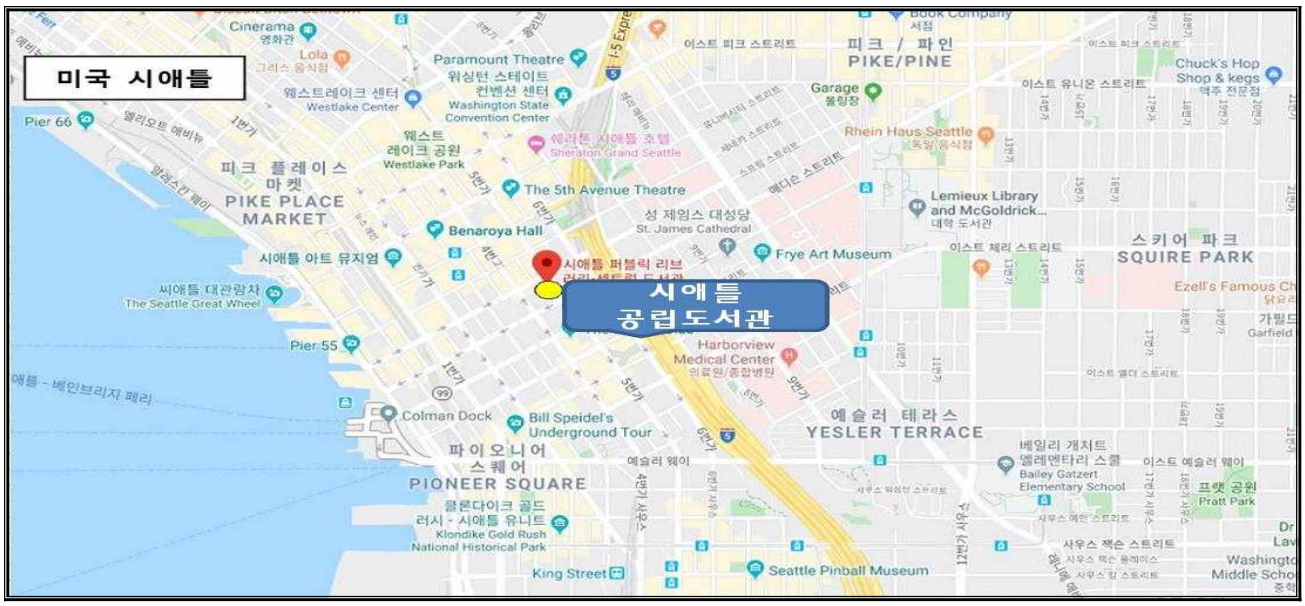
질의응답

기념촬영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우리 구의 일자리플러스센터처럼 **구인·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세팅시켜 주며 1년간 사후관리를 함. 특히 외국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와 교육·후생복지 지원으로 **이민자의 통합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교육과 상담, 후생복지 서비스 연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역시 일반 구직자나 다양한 계층의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료제공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나 취업프로그램 연계, 복지지원을 넓혀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교육 · 문화자원 탐방



□ 시애틀 공립 도서관(The Seattle Public Library)- 미국

○ **방문일시**: 2019. 9. 16.(월) 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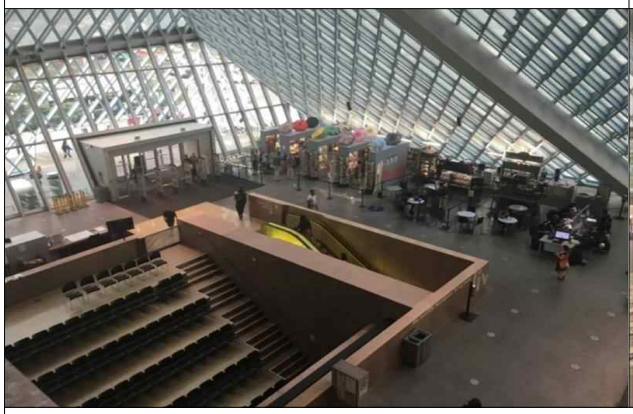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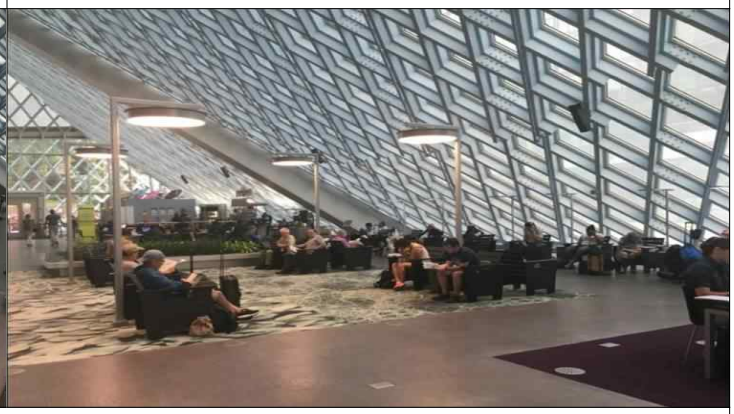
- 2004년에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설계로 지어진 도서관은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혁신적인 건물**로 자연채광이 좋고, 서로 다른 여덟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비정통적이면서 다면체적인 모양으로 건축기법도 독특하고 흥미로움. 죽기전에 꼭 봐야할 건축물 1001에 선정된 건물임
- 한 번 썼던 나무를 재활용하여 바닥을 깔았으며 소파나 작은 화원 등 쉴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
- **1층의 어린이도서관, 3층의 리빙 룸, 10층의 열람실**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음.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라는 계획아래 준공된 건물로 곳곳에 쉼터가 있음
- 우리 구도 도서관 신축 및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서관 기능외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휴식·만남·판매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관련사진

도서관 전경

정문앞 기념사진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 계획된 개성있는 건물로 곳곳에 쉼터가 있음

□ 써리 공공도서관(Surrey City Centre Library) -캐나다

○ **방문일시**: 2019. 9. 17.(화)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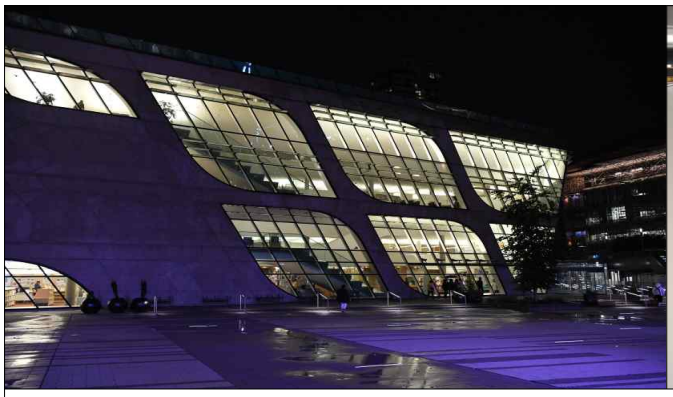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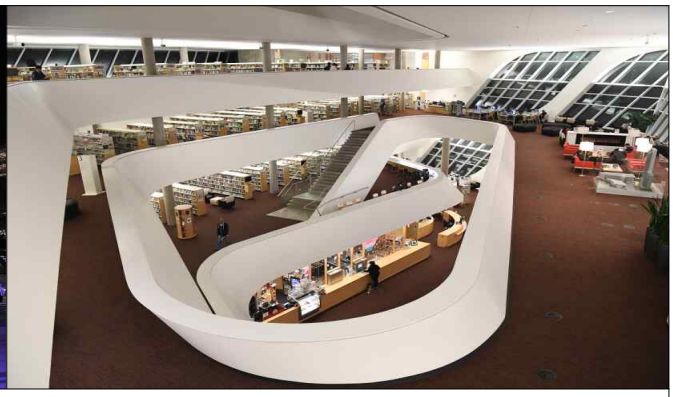
○ **주요내용**

- Surrey Central 역 뒤편에 있는 도서관으로 2011년 9월 개장하였으며, 현대적이고 새로운 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독서를 위한 공공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물인 LEED인증을 받은 **그린빌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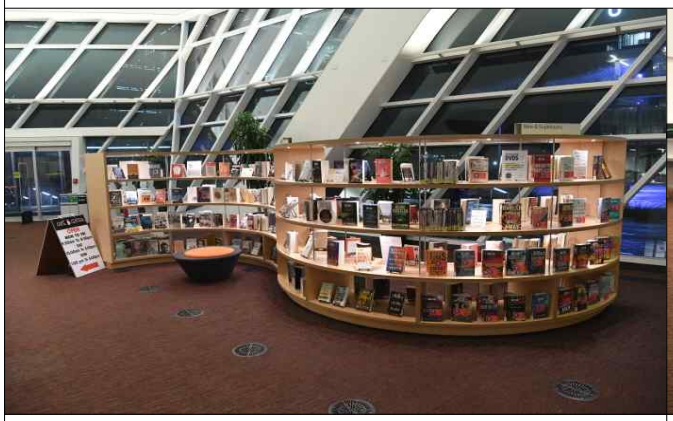
※ LEED는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미국 그린 빌딩 위원회 (USGBC, 혹은 미국 녹색건축위원회)에서 개발한 녹색건물 인증제도

- 서적 뿐 아니라 휴게공간과 카페, 80여 대의 컴퓨터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게임룸도 마련되어 있어 조용히 책만 보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모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종 활동과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주민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사진

배모양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내외부 모습



신간 진열대	주민쉼터 체험

□ Richimond Olympic Oval Centre - 캐나다

○ **방문일시**: 2019. 9. 19.(목) 10:00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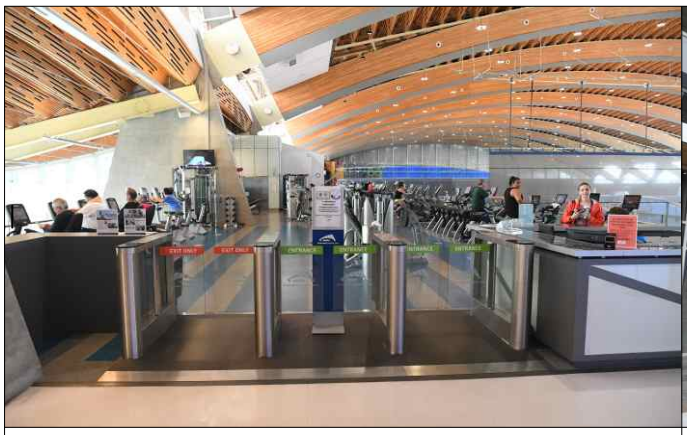
○ **면 담 자**: Troe Weston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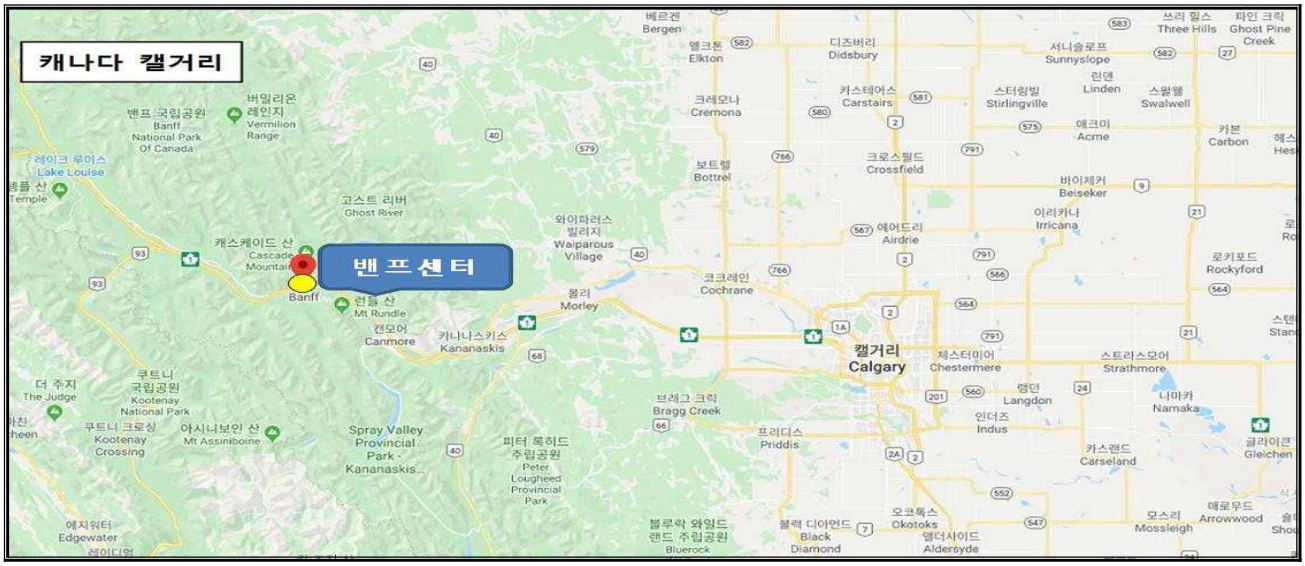
-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스피드 케이팅장으로 이용하였던 건물**을 올림픽 종료 후 시민들의 다목적 주민이용시설로 내부를 개조하였음.
- 환경을 고려한 열기순환 리사이클시스템을 채택하였으며, 암벽등반장은 폐타이어를 재생, 활용하였음. 또한 파도물결 모양의 지붕설치에는 병충해가 들어 죽은 소나무를 이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설계**를 고려하였음.
- 프레이저강 유역에 지어져 새의 날개를 표방한 지붕모양,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문양의 빗물받이, 고기잡이 그물 모양의 조형물 등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이 돋보였음.

– 주요 시설은 아이스하키 등을 즐길 수 있는 경기장 2개, 200미터 육상 트랙, 실내 암벽등반, 23,000 평방미터 규모의 피트니스센터, 실내조정센터, 다양한 미팅룸, 요가 스튜디오, 스포츠 의학센터, 가상체험장 등이 있음.

○ **관련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죽은 소나무로 설치된 파도치는 물결의 천정과 주민이용시설인 헬스장</td><td>새의날개를 표방한 센터 외관</td></tr>
<tr><td> </td><td> </td></tr>
<tr><td>빗물을 받아 정화조로 사용하는 빗물받이</td><td>폐타이어로 재활용한 트랙라인</td></tr>
<tr><td> </td><td> </td></tr>
<tr><td>관계자와 기념촬영</td><td>고기잡이 그물모양의 조형물</td></tr>
</table>

□ Banff Centre for Arts and Creativity(밴프 센터)-캐나다



○ **방문일시**: 2019. 9. 20.(금) 09:00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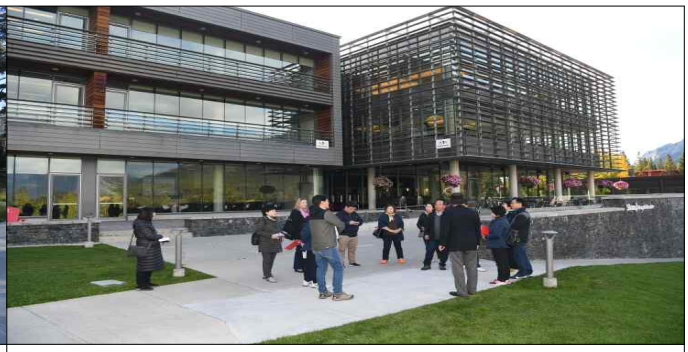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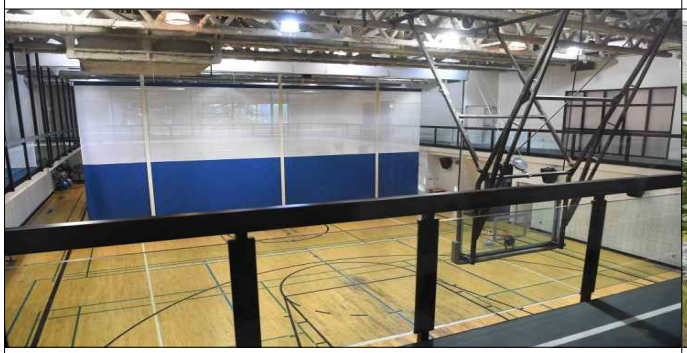
○ **면 담 자**: Jim Ober(고객센터 관리자), Monika Heczkova(홍보 담당자)

○ **방 문 지 주요내용**

- 밴프센터는 서쪽 터넬마운진지역의 약 42이에커에 달하는 큰 밴프 국립공원에 있으며 1933년에 건립된 **비영리단체**이며 알버타 주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문화, 예술, 음악 분야 등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임. 일종의 컨퍼런스센터로서 80여개의 회의장으로 시민들의 휴식처와 명승지로 각광받는 장소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회의장을 대여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함.
- 밴프라는 지역이 음악이나 회화 등에 관심있는 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이라 함
- 예술분야중 특히 시각예술(Visual Art)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일종의 **대학캠퍼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작업하고 교육받는 공간임.
- 매년 3,000여 명의 예술가들이 방문하여 3개월 과정 코스를 거치면서 시각예술, 행위예술, 전자음악 등에 대해 배우고 공연하고 있음.
- **레크리에이션 센터** 내부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클라이밍장 등을 마련하여 주민을 비롯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관련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밴프 전경</td><td>16개의 컨벤션과 60개의 컨퍼런스룸 앞</td></tr>
<tr><td> </td><td> </td></tr>
<tr><td>무대의상 만드는 작업실</td><td>시각·행위예술,일렉트릭 공연장</td></tr>
<tr><td>  </td><td>
</td></tr>
<tr><td>주민이용시설(농구장)</td><td>기념촬영</td></tr>
</table>

3 문화 · 관광 우수사례 탐방

□ 스페이스 니들 전망대- 미국

○ **방문일시**: 2019. 9. 16.(월)

○ **주요내용**

– 시애틀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긴 바늘 위에 외계 **비행접시가 착륙한 모습**을 하고 있어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음. 시애틀 전망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밤풍경 역시 멋지기로 유명함.

- 1962년 **세계 박람회를 위한 구조물**로서, 총 45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61년 12월 완공되었음. 세계 박람회가 시작한 1962년 4월 처음 개방되었으며, 시속 320㎞의 바람에도 견디도록 만들어졌음. 1965년 시애틀을 덮친 6.5강도의 지진에도 손상되지 않고 자리를 지켰음.
- 전망대까지는 165m이고 전체 타워 높이는 180m정도 되며 타워의 이름을 스페이스 니들로 지은 이유는 50~60년대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과학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경쟁적으로 나타낼 시기였기에 우주산업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임.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 까지는 57초 정도면 올라가게 됨.

○ **관련사진**

스페이스 니들 타워

내려다 본 시애틀 전경

□ 스타벅스 1호점- 미국

○ **방문일시**: 2019. 9. 16.(월)

○ **주요내용**

- 1971년에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내에 스타벅스 1호점을 오픈하여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초창기 1호점의 사이렌 로고(인어)가 지금의 스타벅스 로고와 달라 관광객이 줄서서 기념품을 사는 시애틀의 유명한 명소임

스타벅스 1호점에서 줄서는 모습

스타벅스 1호점 로고

□ 개스타운(Gas Town)- 캐나다

○ **방문일시**: 2019. 9. 18.(수) 11:00

○ **주요내용**

- 밴쿠버 다운타운의 워터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운타운으로서, **향토 물품, 의류상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 있으며, 개시 잭(Gassy Jack)의 동상과 오래된 증기시계(Steam Clock)가 이 곳의 명물임.
- 증기시계는 15분마다 증기를 뿜으며 기적소리로 캐나다 국가를 연주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한 때 경제불황 때문에 쇠퇴했다가 1960년대 말 히피족들이 모여서 판매한 수제 액세서리 등이 인기를 끌게 되어 활기를 띠자, 시에서 역사 지구로 재평가하여 올드타운 풍으로 부흥하였음.

○ **관련사진**

개스 타운 거리 모습

Steam Clock

□ 스탠리 공원(Stanley Park)-캐나다

○ **방문일시**: 2019. 9. 18.(수)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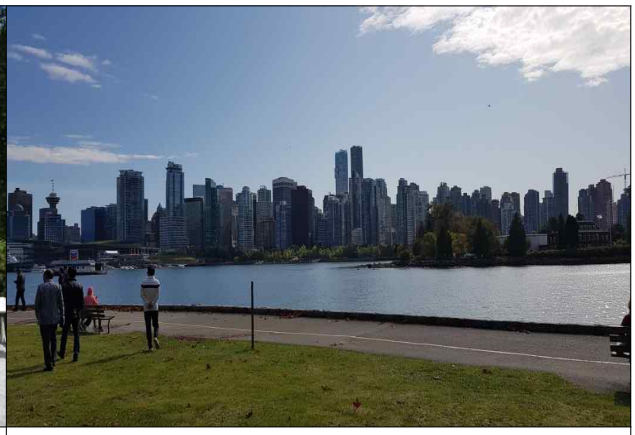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밴쿠버 다운타운 북서쪽에 위치한 공원으로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경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면적이 400만㎡로 아주 넓으며 밴쿠버 시민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 원래 캐나다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으나 1859년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1888년 공원으로 조성되었음. 스탠리파크는 아름다운 자연감상과 휴식이라는 공원의 기본적 기능 외에 교육,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 주는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 공원 입구에서는 마귀, 호랑이, 곰 등의 형상을 한 우리에게 익숙한 **장승공원** 입구에서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 같음.
- 인공수영장과 해변, 피크닉 시설, 놀이터가 들어선 해변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며, 공원 안에는 장미정원, 셰익스피어 정원 등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구경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정원이 있음.

○ **관련사진**

장승공원 입구



해변가

□ 레이크루이스 호수(Lake Louise) - 캐나다

○ **방문일시**: 2019. 9. 20.(금) 11:30

○ **주요내용**

-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로서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키의 보석'이라 불리고 있음.
- 원래 이름은 '작은 물고기 호수'였는데 19세기 후반 캐나다 4대 총독을 지낸 뤄니 후작과 결혼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넷째 딸 루이스 캐롤라인 알버타의 이름을 따서 정했다고 함.
- 빅토리아 산을 에워싸고 있는 6개의 빙하물이 모여들어서 이루어진 곳이며 길이는 2.4㎞, 폭은 1.2㎞, 최대수심 700m임.

○ 관련사진

레이크루이스 호수 앞 기념촬영

4 기 타 사 례

□ **기능성과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 쓰레기통 · 하수구· 교각· 거리조경

기능성과 미관을 고려한 쓰레기통
(밴프센터)

튼튼하고 두꺼운 재질의 빗물받이 뚜껑
(밴쿠버거리)

다리교각의 다양한 색상(시애틀)

여러 가지 꽃들로 장식한 조경
(파이오니아 광장 내)

□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은 관광객을 포함해 해마다 1,000만 명이 찾는 시애틀의 명소임. 1907년 개장하여 **미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해 온 시장** 중에 하나이며, 끈질긴 재개발론이 일었지만 상인들과 환경론자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넘기고 되살아남.

○ 해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야채,과일,꽃,수공예품 등 가격도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서,

○ 요즘은 상점과 식당 뿐 아니라 공원과 보건소 등을 갖춘 **종합 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하였음.

○ 시장 옆의 '껌'벽은 관광인들이 많이 찾는 또하나의 명소임.

<table>
<tr><td>
</td><td> </td></tr>
<tr><td>Pike Place Market</td><td>시장입구</td></tr>
<tr><td> </td><td> </td></tr>
<tr><td>해산물 시장 탐방</td><td>시장옆의 유명한 껌벽</td></tr>
</table>

□ 주민 휴식 및 보행 공간으로서의 광장

○ 현대 도시에서는 차량 증가에 따라 기존의 광장이었던 공간들이 주차장화 화면서 순수한 광장의 의미가 줄어들게 되었음. 서구 도시에서는 이러한 상황개선을 위해 보행자 우선의 도심공간으로서의 광장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데 시애틀 구도심에 위치한 파이오니아 광장은 **주민을 위한 보행공간 마련**은 물론 다채로운 볼거리와 편의시설로 눈길을 끌고 있음.

○ 광장주변을 울창한 나무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아름다운 조경과 정원 등의 쉼터 마련으로 주민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음.

○ 오래된 건물과 상점, 레스토랑이 많아 19세기의 거리를 거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시애틀에서 가장 전통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임.

화재에서 재건된 도시를 상징하는 동상

광장내 주민 휴식처

Ⅴ 총평 및 제언사항

▢ 연수의 목적, 사전준비

살기좋은 도시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한 생활의 안정이며 우리구 역시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와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선진도시의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방향을 벤치마킹하고 기타 문화, 사회, 교육 등 여러 사례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이번 연수의 기획은 2019년 6월 28일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출장 조례 제정에 의거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이고자 위원회별로 추진하게 되었다.

▢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애틀은 미국 대도시 중에서도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스타벅스, 아마존과 같은 소매산업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산업의 경쟁력, 항공산업과 선박 제조 등 제조업의 강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었으며 이에 더한 일자리 정책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성장의 선순환을 타고 있다.

시애틀시에서는 고용 모범모델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직장인을 위한 경력개발과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구직자를 위한 **인턴십과 지역사회 홍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커리큘럼 제공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요즘 건설경기가 좋아져 저소득층인 인디안과 원주민, 흑인, 멕시코 등에서 온 히스패닉은 주로 건설노동자로 종사하여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낮고,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백인들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재소자나 군대갔다온 사람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마약중독자나 알콜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등학교를 졸업안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자퇴한 친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계층별, 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지원방향은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타코마시에서도 잠재력 발휘를 통해 구직이나 취업 후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75만불 이상 들어가는 공사에는 법적으로 15%이상을 타코마 현지 노동자를 쓰게끔 법령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현지인 위주의 고용과 기술교육을 통해 빠르고 쉬운 사회진입을 시키고 있으며 지역 실업률 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구도 다문화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계층별, 분야별 세분화로 취업과 재취업의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음지의 소외된 자들을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

미국과 캐나다 대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두 가지에 놀라게 된다. 먼저 거대한 빌딩숲과 잘 조성된 주민휴식공간에 감탄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발견되는 노숙인의 모습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백인, 유색인종 할 것 없이 도심지, 공원 등에서 술과 마약, 대마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노숙인의 모습에서 선진국 양극화의 우울한 단면을 보게 된다.

캐나다 밴쿠버의 **솔 푸드 팜**은 도시 농업을 통해 실직자나 노숙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사회적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찾아가게 되었다. 설립취지는 밴쿠버 지역의 폐허지나 미개발토지를 농장으로 개조하여 노숙인대상으로 주로 야채와 채소를 재배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자나 마약환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불모지나 빈 땅을 활용한 작물재배로 친환경적인 측면까지 가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이루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또한 지역이 재개발하면 언제든 옮겨갈 수 있도록 이동식 건물과 플라스틱 화분(이동뿐만 아니라 땅이 화학적으로 오염되어 고무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음)을 사용하고 있었다.

워크비시센터 역시 노숙인이나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정책 뿐 아니라 교육진행시 식사 제공, 의복비·교통비 지원과 취직 후 사후관리까지 상황에 따른 맞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다. 센터의 주목적은 **구직자의 수준에 맞춰** 바로 취직이 될 수 있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세팅**해준다는 것이다. (case manager) 또한 이민자협회와 파트너십이 되어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준다는 점이다.

우리 구에서도 노숙인을 위한 급식 지원이나 시설입소 외에도 문래동 공공공지를 도시텃밭으로 활용하여 이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립을 돕고 있으며, 사회 관계망에서 소외된 자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북자등 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다문화협회 등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일자리 교육·연계 등의 사업을 활성화할 시켜야 할 것이다.

▢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에 순응하는 주민편의시설

캐나다 밴쿠버의 **리치몬드 오벌 경기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재생시설이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트장이었던 경기장**은 처음부터 'built for the Games, designed for legacy'(사후활용을 위한 디자인)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다목적 시설'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으며, 올림픽 후 **주민밀착형 편의시설로 개방**하여 지역민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거대한 건물이 칸으로 나뉘어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농구, 배구, 탁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하였다.
또한 열기순환 리사이클시스템, 폐타이어를 활용한 암벽등반장, 강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한 디자인과 조형물 등 친환경적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시애틀 공립도서관**과 **써리 공공도서관**은 **친환경적인 현대식 건물**로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독특한 외관 뿐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 마련으로 개관 당시부터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써리 도서관은 세계가 인정한 친환경 건축물로 각광받고 있는데 바깥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예술적이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며 천장 일부에도 설치되어 있어 자연광을 넓게 퍼지게 하여 실내 조명을 대신하기도 한다.

우리구 에서도 신길도서관, 영등포동 복합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부터 친환경적 설계를 도입하고 각종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한편 문화와 커뮤니티 등 주민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쉼터의 편의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을 생각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소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예술과 문화를 이끄는 창의적인 리더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밴프는 항상 활기가 넘치고 4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고 행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로키산맥으로 둘러싸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있는 **밴프센터**에는 창작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모여든 **예술가들이 각종 회의나 행사, 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16개의 컨벤션과 60개의 컨퍼런스장, 공연장, 호텔 등이 있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예약이 어려운 곳으

로도 유명하다. 또한 주민을 위한 레크레이션 센터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클라이밍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방되어 있기도 하다.

넓고 광활한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는 그 나라만의 자랑이지만 자연을 누구나 이용하고 찾아오게끔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건강, 수익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우수한 사례일 것이다. 산 하나 없는 열악한 우리구이지만 영등포구만이 가진 자연자산 등을 발굴해 구와 민간이 협력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명소를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맺음말

11시간을 걸려 미국에 도착한 후 2시간 이상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 미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행히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길은 간단한 절차로 갈 수 있었다.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현실적인 미국의 고민이 엿보였다.

4개의 기관방문과 지역 탐방을 5박 7일간 빠듯하게 다녀왔다. 이번 공무출장의 목적은 교육,문화,일자리 정책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시청과 시의회, 센터 등을 둘러보며, 입국 시는 까다로웠지만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다양하고 세심한 교육 일자리 등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럽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전통과 유물은 최대한 살리고 새로이 짓는 것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정말 잘 짓고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적이고 사람위주의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마인드가 돋보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빠듯한 일정 상 모든 점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기관방문과 문화탐방을 통해 체득한 여러 사례는 향후 의정운영의 훌륭한 바로미터가 되어 우리 구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영등포구의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 연수는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심도 있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우리구와 유사한 정책이나 시설 등을 비교하여 더 나은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기획해 볼 것이다
장시간 이동에도 불편한 기색 없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질문과 토론에 응해주신 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붙임 1 **방문국 현황**

□ 미국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아메리카 대륙 북부
면적	9,372,610 ㎢ (농지 47%, 산지 29% /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기후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
수도	워싱턴 D.C.
인구	319,471,495명 (추정치)
주요도시	New York, Los Angeles, Chicago, Houston, Philadelphia, Phoenix, San Antonio 등
민족	백인(77.7%), 흑인(13.2%),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2%), 아시아인(5.3%),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히스패닉(17.1%)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종교	기독교/카톨릭(78.3%), 유대교(1.8%), 불교(1.2%), 이슬람(0.9%), 힌두교(0.6%), 토착신앙(0.2%), 기타(0.6%), 무교(16.4%)
건국일	1776. 7. 4 (13개 주 독립선언일)
정부형태	대통령제
국가원수 (실권자)	○ Donald Trump 대통령(취임일: 2017. 1. 20.)

□ 캐나다

국명	캐나다(Canada)
위치	아메리카 대륙 북부
면적	약 998만 ㎢ (단일 국가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음)
기후	광대한 국토로 인해 여러 기후 산재. 벤쿠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은 해류의 영향으로 따뜻함. 중앙지역은 대륙성 기후로 한랭 건조함. 동부지역는 한류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임.
수도	오타와 (온타리오 주)
인구	3,430만명
주요도시	Toronto, Montreal, Vancouver, Ottawa, Calgary, Edmonton 등
민족	영국계(35%), 불란서계(26%), 독일계(4%), 이태리계(3%), 원주민(2%), 중국계(3%) 등
언어	영어, 불어
종교	카톨릭(47%), 개신교(41%), 동방 정교(3%), 기타(9%) 등
건국일	1867. 7. 1.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 연방제, 다당제, 양원제 (상원 104석 / 하원 295석) 형식상 수반은 영국 여왕, 행정 수반은 총리
국가원수 (실권자)	ㅇ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Ⅱ(1952년 2월 6일 즉위) 총리: Justin Trudeau(실권자 / 2015년 11월 4일 취임)